

1회 경기도지사기 여성축구대회 '킵오프'

21일부터 22일까지
광주시 공설운동장에서

“여성 축구인들 다 모여라”
여성축구인들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제1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여성축구 대회가 21일부터 22일까지 광주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여성 축구대회는 광주시 등 경기도내 총 21개 시·군팀 선수 500여명이 참여, 광주시 공설운동장과 동원대학교 운동장, 초월읍운동장 등에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기를 펼친다.

한편 이번 대회는 포천시를 비롯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구리시,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양주시, 하남시, 여주군, 동두천시, 과천시에서 참가할 계획이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정교초등학교 앞 보도설치 절실

포천시 '학교부지 내줘야 보도설치 가능'
교육청 '학교부지 더 이상 내줄 수 없다'



정교초등학교 정문 앞에 횡단보도 없이 한 학부모가 건너편에 어린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달리는 차를 지켜보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포천시가 오는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 2호선(금현리-정교리-이가팔리) 도로 확·포장공사 정교초등학교 앞 구간에 보도없이 설계, 공사를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인근 공장밀집지역과 연결되는 이 도로는 대형 물류 운반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통행하고 있어 정교초등학교 200여명의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도설치가 인될 경우 빈번한

교통사고가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이 도로는 현재 폭이 5m에 불과해 차량교통 등이 어려워 서행하고 있지만 폭 8m 왕복 2차선으로 완공될 경우, 과속이 예상돼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포천교육청과 정교초등학교는 포천시에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정교초등학교 앞 2m부지를 편입·허락하였으나 학교앞 인도가 없고 교통량의 폭

주로 인해 학생들이 등·하교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인도설치를 위해서는 학교부지가 2m정도 더 편입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며 학교부지의 도로편입을 추가로 요청했다는 것.

이같은 포천시의 요구에 대해 정교초등학교의 의견서에 따르면 학교앞 부지일부를 도로부지로 편입시켰을 경우 ▶지역사회 중심학교로 대대손손 배움터로 남겨주어야 할 터전이 좁아지고 체육시설, 배수로, 교문 설주 윗기 등 각종 부수적 경비가 소모되며 ▶공장 신설로 인해 해마다 전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며 ▶전국 어디 어느 학교 앞을 가보아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본교 학교 앞만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행복 추구권이 박탈되고 있기에 정교초등학교 학

부모 및 동문회 각종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교 앞 부지를 편입하는 것을 반대하며 사유지를 이용하여 인도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학교 건너편 사유지 용지보상이 안돼 토지사용 절차에 들어가 연말에나 토지수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 96년도에 인도 없이 설계되었다”며 “학교부지 편입이 안될 경우에는 1.5m의 인도설치가 가능하고, 학교부지 편입 협의가 되면 2.5m의 인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부지는 경기도교육감 재산이라 교육청에서 관리하지만 학교장과 학부모의 의견도 중요해 충분한 협의 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한 학부모는 인터넷을 통해 “지난 6월에 정교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하교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며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해 도우미로 나서서 있을 곳도 없을 정도로 위험한 도로에 인도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송원희 주부명예기자 661204@hanmail.net

- 동 정**
- 북부지역 교육장 협의회**
변진수 포천교육장은 16일 남양주시 교육청에서 개최된 경기북부지역 교육장 협의회에 참석해, 각 교육장들과 함께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경승위원회 월례회의**
최원일 포천경찰서장은 17일 이동면 연곡리 구담사에서 개최된 포천경찰서 경승위원회(위원장 보문정승 해승스님) 월례회의에 참석하고 상호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숙박시설 소방점검 철저 지시**
이대일 포천소방서장은 10일 제15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 관내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철저 및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 민주평통 지역회의 참석**
윤장일 민주평통통일지원회의 포천시협의회장은 17일 경기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제11기 민주평통 지역회의에 관계자들과 참석해 민주평통에 관해 논의했다.
- 제5회 청소년 민속예술제**
이만규 포천문화원장은 17일 제5회 청소년 민속예술제에 참가해 대상을 수상한 포천메타리 농악놀이 관계자 및 출연 학생들을 축하하고 앞으로 더욱 계승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 제1회 미술실기대회 참석**
김진동 포천예총회장은 18일 오후2시에 포천 청송공원에서 포천미술협회 주최로 개최된 '산자수명' 제1회 포천미술실기대회에 참석해 대회주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포천시지회 자문위원회**
이동해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은 17일 포천시지회 회의실에서 열린 자문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노인회 발전 등 현안에 대한 논의 후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 기초질서지킴이 운동 참여 독려**
이병일 바르게살기포천시협의회장은 15일 포천시 민속장터 입구에서 장날 행인들에게 전단과 티슈를 정중하게 배포하여 기초질서지킴이 운동 참여와 선진시민의식을 당부했다.
- 경기도회장단 협의회 정기총회**
이광호 포천시재향군인회장은 18일 평택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회장단 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국가보안법폐지반대 및 현안보실태를 토의했다.
- 제6회 전국지방의제21대회**
윤순옥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장은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16~18일 개최된 제6회 전국지방의제21대회에 참석해 의제추진기구들간의 정보교류 및 현안을 논의했다.
- 생활체육대회 교통정리**
김재현 포천모범안전지회장은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경기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에서 회원들과 경기장 주변의 교통통제 및 교통정리를 실시했다.
- 밝은 사회 위한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이문환 포천성·가족상담센터소장은 14일 삼천리회관에서 열린 2004 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서 법무부 의정부지역협의회 신규범죄예방위원 위촉장을 전수했다.

12월17일 포천신문 300여명 가족송년회 개최키로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제33차 정기회의에서 결정



포천신문 운영위원회가 지난 17일 제33차 정기회의를 갖고 송년회 일정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 유병호)가 지난 17일 오후 7시 제33차 정기회의를 갖고 송년회 일정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유병호 운영위원장과 이상갑 고문, 김태규 감사, 권혁은 총무, 나근수 특별위원, 본지 최호열 발행인 등 정원 30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는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의 발전방향의 건, 운영위원 위촉 및 해촉의 건, 2004년 송년회 개최의 건 등 안건을 처리했다.

유병호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발대식과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발족식등을 통해 포천신문 가족이 새롭게 구성되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니 입을 강조하고 “운영위원들이 새로운 가족들에게 위지부지 않도록 포천신문의 발전을 위해 더욱 강한 결속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지 최호열 발행인은 “주부명예기자단과 조사위원회의 출범으로 정론자인 포천신문의 위상이 한단계 높아질 것”이

라며 “언제나 바른뉴스를 전달하는 포천신문을 항상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신문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해촉된 위원은 대동식품 광호준, 일동사이판 나중원 위원이며, 김정선 대표, 리터게미컬의 황광익 대표와 무봉리토종순대 이희순 대표, 승화식품에 김택곤 대표가 참석위원의 만장일치로 신규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

또 운영위원은 2004년 송년의 밤 행사 개최 안건에 대해 포천신문 최호열 발행인은 “이번 송년회는 포천신문자문위원회, 포천신문주부명예기자단,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및 포천신문학생명예기자단 등이 다 함께 하는 자리로 만들고자”한다고 제안하자 만장일치로 받아들여 오는 12월 17일에 포천신문 전 가족이 합동으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운영위원회 단합을 위해 진행중인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가을 정기 야유회’는 내년 봄으로 연기됐다. 다음 운영위원회의는 다음달 15일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역배기자
94spice@hanmail.net

“기초질서” 지키기의 생활화

바살협 회원들 민속장터서 캠페인 펼쳐



바살협 포천권지역 위원회 위원들이 15일 민속장터 입구에서 시민들에게 전단과 티슈를 배포하며 기초질서지킴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바르게살기포천시협의회(회장 이병일)가 포천시 시민들의 기초질서지킴이 생활화를 위해 앞장섰다.

바살협 포천권지역 위원회(군내면, 신북면, 참수면, 포천동) 위원 20여명은 15일 민속장터를 중심으로 포천권 일대에서 기초질서지킴이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8월 23일 3/4분기 임원회의 때 토의 안건으로 채택돼 관내 각 읍면동위원회와 합동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이병일 회장은 “우리시민은 88 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선진국 도약을 위해선 시민의 질서지킴이 향상돼야 함에도 점

점 사라지고 있어 추진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거리캠페인을 하며 민속장터로 이동한 바살협 회원들은 행인들에게 기초질서를 지키는 항목 등이 적힌 전단과 티슈를 배포하며 기초질서지킴이운동 참여와 선진시민의식을 당부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즐기만 하는 운동은 한계가 있다”며 “시민 스스로의 의식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오는 10월 중 소홀권(소홀읍, 내촌면, 가산면), 일동권(일동면, 이동면, 화현면), 영북권(영중면, 관인면, 영북면)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지역배기자
94spice@hanmail.net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펼쳐

관인의용소방대 이웃사랑 실천

관인의용소방대(대장 안윤빈) 대원들이 펼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 16일 관인면의용소방대 대원 10여명은 관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행사를 펼쳤다.

이날 대원들은 관인면(면장 이윤기)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어려운 가정들을 각 리별 1가구씩 방문해 도움을 주었다.

면과 각 리 이장들의 도움으로 추천받은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쌀(10kg·1포)과 라면(2상자)을 전달했다.

이윤기 면장은 행사에 앞서 “불우이웃돕기 등 앞으로도 관내 주민들을 위한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용소방대 안광용 총무부장은 “의용소방대에서는 1999년부터 연례적으로 하던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2003년부터는 ‘실’과 ‘추석’로 확대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는 회원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원근 관인소방서소방교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도



관인의용소방대가 추석을 앞두고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펼쳐 온정을 베풀고 있다.

움으로 관내에서 소방서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다”며 “미약하나 의용소방대원들과 뜻을 함께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관인의용소방대는 1956년 창단 후 장학행사, 불우이웃돕기, 화재예방 등을 위해 힘써오고 있는 봉사단체다. 또한 관인

의용소방대는 다음 카페(cafe.daum.net/kwanin119)의 운영으로 대외적인 홍보와 회원 및 각 의용소방대간 정보교환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배기자
94spice@hanmail.net



“하늘에 닿을 만큼 힘껏”

가을은 운동회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높아가는 파란 가을 하늘처럼 학교 곳곳에서 자기 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계절이다.

포천에서의 가을운동회는 지난 15일 가산초·중리초·추산초교 등에서 먼저 시작돼 17일 송우초교 등으로 이

어졌다.

운동장 앞에 치킨주문 호객 행위와 캠퍼더로 아이들의 모습을 찍는 모습 등이 달라진 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 지역주민 모두 하나가 되는 즐거움 잔치 마당의 모습은 그대로였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세계속의 관광포천으로 도약하는 발판 구축

제8회 명성산 역사꽃 축제 주관대행사 선정위원회

경기북부 지역의 대표적 축제인 “산정호수 명성산 역사꽃 축제”를 주관하게 될 대행사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포천시 관계자와 관련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모두 4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독창성과 실효성, 프로그램의 적정성 등을 비교, 검토하는 한편, 보다 성공적인 축제 진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울해로 8회 째를 맞는 산정호수 명성산 역사꽃 축제는 포천이 지난 천혜의 관광자원을 많은 이가 지닌 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 지역주민 모두 하나가 되는 즐거움 잔치 마당의 모습은 그대로였다.

이날 선정 심의에 앞서 박운국 포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요

한 관광상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매력있고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포천하면 막걸리와 이동갈비를 떠올리듯이 지역축제하면 산정호수 명성산 역사꽃 축제가 연상되도록 축제의 브랜드 파워를 키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천시는, 현재 문화관광 벨트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독창성과 실효성, 프로그램의 적정성 등을 비교, 검토하는 한편, 보다 성공적인 축제 진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울해로 8회 째를 맞는 산정호수 명성산 역사꽃 축제는 포천이 지난 천혜의 관광자원을 많은 이가 지닌 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 지역주민 모두 하나가 되는 즐거움 잔치 마당의 모습은 그대로였다.

이날 선정 심의에 앞서 박운국 포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요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